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10월 14일 금요일 (음 9월 14일) 제166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북도 익산 왕궁물류단지 조성 사업 '난항'

효율적 물류시스템 구축 지지부진 추진에 '짜증'

익산시, '농지전용 불가' 입장 고수... "농업진흥지역으로 보전 가치 있어"
주민들, "익산시에서 물류단지 홍보... 사업 추진 발목잡는 것은 이해 불가"

전북도가 추진중인 익산 왕궁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난항이다. 사업 해당 지자체와의 의견 조율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 구축은 '먼 나라 얘기'가 되고 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왕궁물류단지 개발 사업은 민간자본 700여억원을 들여 왕궁면 광암리 일원 48만여㎡에 물류센터와 전문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그 간 국토교통부 실수요 검증을 통과한 뒤 사업계획 승인 신청, 주민 공감공고 및 합동설명회 개최 등의 절차를 밟아왔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난 2014년 8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무역투자진흥회의에 건의되면서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관심의 보완과 농지전용 등 2개 항목에 대한 의견만 남은 상태다. 또 농지전용은 농림부나 사업 최종 승인권자인 전북도가 긍정적으로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사업 승인에 필요한 행정 절차는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다. 하지만 각종 인허가 협의과정에서 익산시가 '농지전용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월 2일에 이어 9월 2일에 걸쳐 사업 대상지 내 농지전용이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전북도에 제출했다. 익산시의 부적정 이유는 왕궁물류단지 용지의 약 59%가 경지정리된 우량농지이자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우량농지 확보 및 농업 생산성향

상 차원에서 보전가치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이달 6일 농지전용 의견을 농림부에 제출해 놓은 상황인지만 중앙부처의 승인이 내면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익산시의 반대 입장에 낙후된 지역 변화를 바라는 주민들은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주민은 "익산시가 왕궁물류단지는 호남고속도로, 익산~장수 고속도로와 가깝고 익산역과도 20분 거리에 있어 물류 수송에 유리하다. 단지가 조성되면 연간 3000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5000억원의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면서 "농지전용이어서 사업 추진 발목을 잡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군산항 활성화 대책, 수심확보가 관건

군산해수청 "토사 퇴적 인한 낮은 수심이 침체 원인
농수산물 물류 유통 위한 냉장·냉동 시설 건설도"

군산항 활성화 방안으로 수심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인천항 등 서해안권 항만의 물동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군산항의 물동량은 담보상태에 빠져 있다. 군산항 침체 주요 원인은 군산항이 토사 매몰에 따른 낮은 수심으로 적정수심 유지가 곤란하고, 항로 부족과 배후 산업기반이 취약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최근 완료한 '군산항 유지보수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들여다 보면 현재 추진

중인 준설사업이 2018년에 완료되더라도 매년 약 180만㎡(200억원 소요 추정)의 토사가 퇴적되는 것으로 분석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군산항이 대 중국 농식품 수출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려면 기반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냉장·냉동 창고 시설은 형편없이 초라하다는 것이다. 전북은 전국 360만톤 대비 1.2% 수준인 총 3만여톤에 불과한 것으로 파

악했다. 이런 열악한 상황 탓에 수출을 위해 냉동·냉장시설이 필요한 도내 관련 업체는 거액의 물류비를 감수하면서까지 군산항 대신 평택이나 광양항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농수산물 물류 유통을 위한 냉동·냉장 창고 건설과 공공부두 축조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천환 도 건설교통국장은 "전북도는 군산항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효성 있는 군산항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전북도·군산해수청·군산시 등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13일 오후 충남 아산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97회 전국체육대회 폐회식에서 충청북도 선수단이 '2017년 전국체전은 충북에서'라는 현수막을 들고 입장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17개 시도에서 2만 5000여명의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룬 가운데 전북선수단은 목표인 종합 9위를 달성했다.

전국체전 마무리... 전북, 종합순위 9위 달성

"전북의 건아들, 잘 싸웠다"

금 57·은 40·동 82개 획득... 야구·자전거 등서 크게 선전
수영·하키 등서 새로운 가능성 보여... 종합 우승팀에 경기도

지난 7일부터 13일간 충청남도 일원에서 열린 '제97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전북선수단이 목표였던 9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관련기사 4면·13면> 대회 종료 하루를 앞둔 지난 12일 대구, 강원, 광주에 뒤진 12위 대구, 강원, 광주에 뒤진 12위로 당일 경기를 마감했던 전북선수단은 대회 마지막 날인 13일 하루에만 금메달 5개, 은메달 3개, 동메달 4개를 추가하며 대구, 강원, 광주를 모두 재치고 종합 9위를 대회를 마감하는 엄청난 저력을 선보였다. 전북선수단은 금메달 57개, 은메달 40개, 동메달 82개를 따서 종합득점 3만2,736점으로 목표했던 종합9위와 3만2,000점 이상 획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10위 강원과는 450점 차로 큰 점수차를 보였다. 종목별로는 야구와 공도가 17개 시도 중 전체 1위에 등극했고 전 통적인 효자종목이었던 자전거와 육상(필드) 역시 전체 2위에 오르며 전북의 약진에 힘을 보탤다. 또

한 수영(수구)과 하키, 배드민턴, 산악, 댄스스포츠 역시 종합순위 3위에 오르며 새로운 가능성을 선보였다. 전북선수단은 새로운 한국신기록과 대회신기록, 주니어신기록도 여러 개를 수립했다. 롤러 남자일반 3000m 계주에 출전한 도체육회 팀은 3:51.146라는 놀라운 기록으로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 수영 여자 일반 혼계 400m에 출전한 도체육회 팀 역시 4:05:63이라는 기록으로 대회신기록을 수립했으며 여자 일반 배영 50m에 출전한 유원지와 자유 100m출전한 고미소 선수 역시 대회신기록을 수립했다. 진안군청 소속으로 역대 남자일반에 출전한 인상 69kg급 유재식 선수는 주니어 신기록을 수립했다. 전국의 사이클 1인자인 삼양사의 나이름 선수는 도로독주, 단체도로, 개인도로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3관왕을 차지했고 진안군청 소속의 역도의 유동주 선수 역시 85kg급에서 인상, 용상, 합계를 다 우승하며 3관왕에 올랐다.

전국체전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야구 남자고등부 경기에서는 전통의 강호 군산상고가 전국 최정상 자리를 차지했고 타구 역시 이 일여고가 전국 최강의 자리에 올랐다. 자전거 삼양사, 공도 도체육회, 체조 전북도청, 펜싱 여자고등 이리여고와 여자일반 익산시청, 배드민턴 남자고등 전주생명과학고와 남자대학 원광대, 조정 군산시청 등이 단체종목 우승을 차지하며 각 분야의 전국 최강팀으로 거듭났다. 전북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물론 좋은 성과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내년 전국체전을 대비해 우수선수 확보와 실업팀 창단 및 불출전 종목을 최소화 하려는 계획을 벌써부터 수립하고 있다"며 "전북체육의 진흥을 위한 한걸음 한걸음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아 기쁘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대회의 종합 우승팀은 종합득점 6만 4,418점을 얻은 경기도가 전남에 이어 또다시 우승을 차지했다. 홉합이었던 충청남도도 종합득점 5만 8,422점으로 분전했으나 디펜딩 챔피언 경기도에 이어 2위에 만족해야 했다. /김민근 기자

*도·일요일 신문 쉽니다.

전주매일의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전북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는 토지개발 등 수익사업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임대주택 등 공익목적 사업에 재투자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을 도모합니다.